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소비자안전 모니터

지난 7월 26일,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제3기 소비자안전 모니터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소비자안전 모니터로 선발된 100명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성실한 활동 수행을 다짐했다.

글_이영연 대리(위해정보국)



소비자 안전, 우리가 지키다!

“하나, 우리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감시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안전 모니터로서 선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00명의 소비자안전 모니터 요원이 외치는 다짐이 강당을 채운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소비자안전 모니터’는 소비생활 현장의 생생한 위해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 직접신고를 활성화하고 위해요소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국민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 개발 등에 따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동향분석, 안전실태조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제도 개선, 리콜 등 사업자 시정 권고와 같은 다양한 소비

* 위해정보: 가정, 직장 및 학교, 레저 활동 등 소비생활 중에 이용하는 상품, 서비스,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해사고 사례 혹은 위해 우려가 있는 사례

자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위해정보'이다.

이러한 위해정보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소비자안전 모니터의 주요 과업이다. 모니터 운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직접신고 건수가 5.6배나 증가해 결함 제품과 위해 원인이 명확한 양질의 위해정보 수집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언론 보도된 '스크린 야구장 안전 실태조사'와 같이 모니터가 직접 제안한 사업 과제가 채택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실태조사를 수행해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2016년 제1기 50명에서 2017년 제2기 70명, 2018년 제3기 100명으로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충북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위해정보신고 외에 '국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비자안전 모니터는 소비생활의 안전 감시자로서 위해정보신고, 소비자안전정보 확산,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엄마의 깐깐한 눈으로 내 아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갑니다

클_우은영(소비자안전 모니터)

육아를 하면 모든 일상이 평범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사소하게 지나쳤던 모든 것이 예민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육아용품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점은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하지는 않을까, 조금 더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까, 혹은 주의문구 등을 제품에 눈에 띄게 표기할 수 없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안전 모니터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모니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비자안전 모니터로서 평범하지만 비범한 소비자의 눈으로 생활의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육아를 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육아용품, 먹거리, 장난감 등에 특히 관심이 갑니다. 아이가 각종 물품을 이용하다가 다쳤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있으면 위해정보로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했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이러한 위해정보 신고 하나로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고한 건 중에 제품의 주의문구 표기가 개선되어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처럼, 실제로 시정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소비자안전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한 데 모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설렘을 안고 시작한 활동이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여 2018년 7월, 최우수 모니터 수상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만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한 활동이 상까지 받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활동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촉매 역할을 해 기업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이 한층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우수 모니터 수상의 영예를 소비자와 기업 간의 촉매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